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예산 매년 최고수준

### 광주·전남 66개 사업 162억원...전체 예산 15.7% 차지

### 전남 기초산업 7억·광주 중기 제조혁신 2억5천 지역 내 최고

광주·전남 지자체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광주 27개·전남 39개 등 66개가 선정돼 각각 58억1000만원, 103억8000만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했다. 사업 7개 중 1개 팔로 광주·전남이 선정된 것으로 두 지역의 예산 지원액 비율은 광주 5.6%, 전남 10.1%를 차지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 예산 지원액은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5년 145억6000만원 ▲2016년 229억3000

만원 ▲2017년 240억3000만원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해부터 전체 예산이 줄면서 ▲2018년 220억5000만원 ▲올해 161억9000만원의 국비를 타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은 2015년 16.7%→2016년 23.6%→2017년 19.5%→2018년 18.6%→2019년 15.7%로 집계됐다.

전남은 예산 확보를 두고 매년 경남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전남 지원액은 2015년 83억9000만원에서 이듬해 157억2000원으로 경종 뛰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전남의 예산 지원액은 2017년 1위(163억4000만원)→2018년 2위(151억6000만원)→2019년 2위(103억8000만원)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규모로 보면 전남에서는 '전남형 주력산업 고용안정 프로젝트' 기초산

### ■ 시도별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지원액 (2019년 기준, 단위: 억원)

1	경남	115.6	9	광주	58.1
2	전남	103.8	10	대구	51.4
3	경기	85.2	11	인천	49.6
4	부산	84.4	12	서울	49.5
5	전북	83.6	13	강원	48.1
6	충북	70.3	14	충남	46.7
7	경북	62.5	15	대전	29.6
8	울산	61.4	16	제주	19.9
			17	세종	14.1

(자료: 고용노동부)

업분야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7억 1000만원을 확보하며 가장 많이 차지했고, 광주는 '중소기업 제조혁신 확산 프로젝트'가 2억5000만원을 받으며 지역 내 1위를 차지했다.

표고버섯이 특산품인 장흥군은 '버섯산업 맞춤형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9800만원을 따왔고 영암군은 '대불국

가산업단지 고용활성화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받았다.

기술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도 잇따라 추진됐다.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시는 '스마트 플랜트 공정제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예산 1억원을 확보했고 광주시 북구 'NCS 기반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1억), '3D 프린팅을 활용한 자동차부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9500만), 서구 '공간정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1억), 남구 '신중년 인성 2도작을 위한 자동차 검사 인력양성' (1억), 광산구 '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설계·DB관리 전문인력 양성' (7000만) 등도 공모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기간 동안 광주·전남 지자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라며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과 지도점검·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88.65 (+6.80)    ▼ 금리(국고채 3년) 1.41 (-0.02)
- ▼ 코스닥 627.86 (-0.24)    ▲ 환율(USD) 1189.90 (+0.30)

### 광주 오이솔루션·애니젠, 나주 동우전기

## 극일 프로젝트 '강소기업 100' 선정

### 정부, 5년간 최대 182억 지원

광주지역 광산업업체 오이솔루션과 바이오업체 애니젠, 나주지역 전기업체 동우전기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연료전지부품업체 비나텍이 뽑혔다. 전국적으로 55개사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R&D), 사업화자금, 마케팅 등 5년간 최대 182억원을 지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강소기업 100)의 지원 대상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다.

광주지역에서는 대표 광산업체인 오이솔루션과 바이오업체 애니젠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동우전기가, 전북에서는 비나텍이 뽑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오이솔루션은 글로벌 5G 핵심 부품인 광트랜시버(Optical Transceiver)를 개발, 생산·판매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과 손잡고 광트랜시버의 핵심인 광반도체소자(레이저다이오드)의 국산화에 나섰다.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 원가의 약 30% 수준을 차지하는 광반도체소자를 일본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번 개발 및 상용화가 마무리되면 수입 대체와 기업 성장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첨단산업 내 바이오벤처기업 애니젠은 인체 호르몬의 주성분인 펩타이드 생체소재의 산업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의 펩타이드 전문기업이다. 펩타이드의 약소소재(원료의약품, 임상용 위탁생산)의 글로벌 판매망 구축을 통한 매출확장과 함께 항암, 항균, 당뇨, 비만 치료용 펩타이드 혁신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나주 혁신산단에 동지를 든 동우전기는 변성기 전문기업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170kV급 GIS용 변압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전북 전주에 있는 비나텍은 친환경 에너지 저장 소자인 슈퍼커패시터와 청정 에너지원인 연료전지 부품인 지지체와 촉매, MEA를 개발,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채우지 못한 강소기업 45개사를 내년 중 추가 공모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전KDN 재해예방 시스템

### ISO45001 인증 취득

### 안전작업수칙 표준안 관리 우수

한전KDN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이 국제 인증을 받았다.

9일 한전KDN은 이날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새로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이다.

인증 심사 평가에서 한전KDN의 '중대 재해 및 사고조사의 체계적 관리'(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분야와 '현장안전관리 강화 방안'(안전작업수칙 표준안 관리)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전KDN은 분사 및 전국 사업소 전반의 안전보건체제를 재정비하고 인증 이후에도 내부 심사원 양성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 근로자 작업 중지 요청제인 '세이프티 릴레드'와 해외 근무자 및 출장자 신변안전 서비스를 신설해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한전KPS와 협업해 송전철탑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준안전대를 개발했다.

박성현 한전KDN 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강화 정책을 수립·시행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동심 가득 'KJ원더랜드'서 추억 만들어요



송중욱 은행장(가운데),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왼쪽), 송현 광주은행 상임감사가 9일 KJ원더랜드 개관 후 아동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내년 1월 31일까지 무료운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9일 광주은행 본점 1층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지역 아동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KJ원더랜드'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리는 'KJ원더랜드'는 본점 1층 KJ스퀘어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선물지, 즐거움이 함께하는 회전목마, 금을 지키는 금용히어로존, 비행기, 잠수함 등 동심 가득한 테마로 알차게 구성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포토존을 만들어 어느 때보다 재미와 감동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KJ원더랜드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1월 25일 휴무)까지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및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단, 평일 유치원 등의 단체 관람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KJ원더랜드의 단체관람 및 사전예약은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

KJ원더랜드는 매년 겨울마다 색다른 테마로 지역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무료로 제공해, 명실상부 지역의 대표 전시회와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추운 겨울 KJ원더랜드가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쉼터와 행복의 공간이 되어 KJ원더랜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산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 삼성 비스포크·담채·금호타이어

## 광주 3개 제품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삼성 비스포크와 담채, 금호타이어 등 광주지역 제품 3개가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 지역 연구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보다 11계단 상승하며 대한항공을 앞질렀다. 삼성 갤럭시는 9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9일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는 브랜드가치 평가지수인 BSTI 935.1점을 얻어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스탁은 삼성 갤럭시의 3분기 일본 시장점유율이 3배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약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브랜드가치 향배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삼성 비스포크(49위)와 워니아담채의 김치냉장고 담채(81위), 금호타이어(87위) 등 광주지역 3개 제품이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보다 11계단 경종 뛰어오르며 32위에 랭크, 대한항공(34위)을 앞질렀다. 쿠팡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100위였던 쿠팡은 올해 46계단 상승하며 54위에 올랐다. CGV는 23계단, 자이는 20계단 오르며 각각 69위와 47위를 차지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77위로 지난해보다 18계단 상승,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BMW를 제치고 수입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새로 진입한 브랜드는 경동나비엔(79위), 정관장(84위), 한샘(88위), 아이시스(89위), T맵(95위), 한글과컴퓨터(99위), 스타벅스(100위) 등 모두 7개다. /박정욱 기자 jwpark@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